

제주 경기 종합지수

- 2004년 8월 기준 -

육지부·내수 의존적인 경제구조를 갖고 있는 제주지역 경기는 2000년 10월(잠정) 제3순환기의 정점을 지난 후 계속되는 국내 내수부진(소비·투자)으로 인해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8월 현재까지 수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제16대 대통령 선거로 인해 2002년 10월부터 2003년 1월 까지 4개월 동안 일시적인 경기회복이 있었으며 2004년 1월 설수요 증가와 2004년 6월 생수, 소주 등 소비재부문 생산 증가로 인해 일시적 경기회복이 있었음.

- 2004년 8월중 동행종합지수는 전월과 동일한 109.7을 기록하였음.

-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동행종합지수에서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 하강 움직임을 추출하여 산출한 것)는 2004년 8월 현재 전월보다 0.1p 하락한 98.1을 기록하였음.

- 설 수요 증가로 순환변동치가 일시적인 증가를 보이기 전인 2003년 12월 순환변동치가 최저점을 보이며 경기전환점이 될 가능성도 보였으나 2004년 2~5월 계속해서 순환변동치가 하락함. 그러나 2004년 6월 순환변동치가 소폭 증가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를 갖게 하였으나 7월 이후 다시 하락세를 보임.

- 2004년 8월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전월과 동일하나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대비 하락한 이유는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구성지표 중 농산물소득(전월대비 1.45%),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1.61%)와 전력사용량(주택용; 전월대비 1.76%)은 증가하였으나 나머지 3개 지표인 관광객수(전월대비 -1.91%), 산업생산지수¹⁾(전월대비 -2.35%), 산업생산지수(소비재²⁾ 전월대비 -3.30%)가 하락하였기 때문임.

1) 국내 생산활동의 단기 추이를 파악하기 위하여 광업, 제조업, 전기 및 가스업을 대상으로 매월 생산을 조사하여 작성하는 통계임. 실물경제동향분석, 국민총생산추계, 노동생산성추정 등에 유용하게 이용됨.

2) 일상에서 주로 사용하게 되는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지수임. 소비재에는 내구연수가 1년 이상이 되는 내구소비재와 내구연수가 1년 이하인 비내구소비재로 이루어짐. 내구소비재에는 승용차, TV, 냉장고 등이 있으며 비내구소비재에는 형광등, 음식료품, 서적, 음반 등이 포함됨.

· 제 · 주 · 경 · 기 · 종 · 합 · 지 · 수 ·

〈제주지역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의 동향〉

(2000=100, %, p)

구 분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동행종합지수	110.8	110.6	109.8	109.6	109.2	110.3	109.7	109.7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0.8	-0.2	-0.7	-0.2	-0.4	1.0	-0.6	0.0
순환변동치	98.5	98.4	98.2	98.0	97.8	98.9	98.2	98.1
순환변동치 전월차	0.6	-0.1	-0.2	-0.2	-0.2	1.1	-0.7	-0.1

〈제주지역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단위 : 전월비, %)

구 분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04.08
비농가취업자수	-0.36	-0.08	-0.29	0.12	-1.04	0.37	0.54	1.61
산업생산지수	6.02	-3.89	-3.56	-5.24	3.83	4.91	-3.67	-2.35
관광객수	0.55	0.72	-1.73	1.01	-0.11	2.87	-0.06	-1.91
농산물소득	-1.20	-2.78	1.12	0.69	1.24	4.96	0.54	1.45
산업생산지수(소비재)	5.24	-3.29	-6.29	-1.01	-1.75	5.37	-6.52	-3.30
전력사용량(주택용)	2.83	2.72	1.27	-0.38	-2.34	-2.21	-1.58	1.76

주) 증감률은 계절 및 불규칙 조정계열의 증감률임.

- 농산물소득인 경우 마늘, 양파, 감자 등 밭작물의 영향으로 2004년 3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수산물 또한 태풍 영향으로 어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갈치, 고등어, 멸치 등 어획량 증가로 농수산물소득 상승에 기여하고 있음.
- 소비부문인 경우 7월부터 확대시행된 토요일무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이용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대소형 매장 매출액이 전월비 0.75%가 증가하였으며, 9월 추석연휴 및 가을 단풍관광 등으로 인한 소비부문 회복이 기대됨.
- 제주도내 산업생산인 경우 원자재 가격상승 및 소비부진 등으로 가공해초류, 소주, 배합사료 등의 음식료품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가 하락세를 보임. 그러나 도내 건설 분야에서 기존 수주 물량 발주에 따른 영향으로 전년동기대비 레미콘, 시멘트, 철재, 모래 등 주요 건설자재의 출하량이 증가하여 침체된 도내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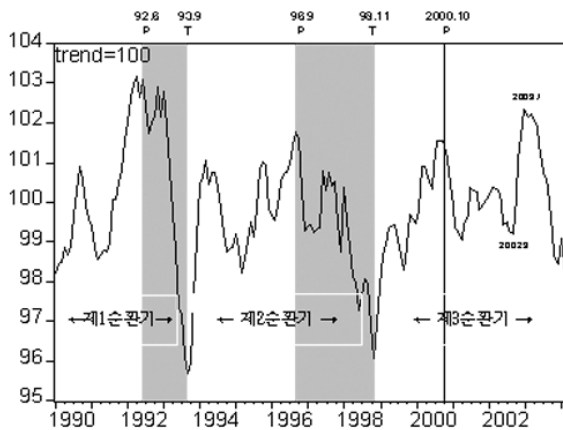
제주지역경제의 양축인 소비부문과 생산부문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들의 대표적 지수인 소비자물가지수와 산업생산지수를 분석한 결과 2004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16개

시·도 가운데 중간수준으로 전국평균보다 0.77% 낮은 수준임. 또한 산업생산지수는 90년대에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는 상황임.

1. 제주지역의 경기국면

- 1990년을 기점으로 개발한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는 제1순환기, 제2순환기를 거쳐 현재 제3순환기에 있음.
- 월별 자료의 제약으로 1990년 1월 이후의 자료를 이용하여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가 개발되었기 때문에 제1순환기의 확장국면은 잡히지 않았으며, 1992년 6월을 정점(peak)으로 하여 1993년 9월(trough)까지 수축국면을 보임.
- 제2순환기는 1993년 9월 저점을 지나 1996년 9월까지 확장국면을 보였으며, 1996년 9월을 정점으로 하여 1998년 11월까지 수축국면을 보임.
- 제3순환기는 1998년 11월을 저점으로 하여 2000년 10월(잠정)까지 확장국면을 보였으며, 2000년 10월 이후 계속적인 소순환을 보이며 수축국면을 보이고 있음.
- 제3순환기의 정점을 2000년 10월로 확정할 경우 이는 전국의 정점 2000년 8월(잠정)보다 2개월 후행하는 것임. 이는 1, 2순환기인 경우 전국보다 정점이 6개월 후행하여 나타난 것에 비해 4개월 앞당겨진 것으로 감귤 및 월동채소류의 가격폭락으로 이들이 제주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 제주지역에 불경기가 빨리 찾아온 것으로 판단됨.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주 : 음영기간은 제주도의 경기불황기를 의미함.

2. 2004년 8월 전국 경기동행종합지수 및 경기국면

- 전국의 경기동행종합지수는 2003년 8월 이후 다소 회복세를 보이다가 2004년 4월 이후 8월 현재까지 5개월째 하락하고 있음.
- 2004년 8월 현재 전국의 동행종합지수는 전월대비 0.5% 하락한 123.3을 기록함.
- 현재의 경기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1.0p 하락한 97.1을 기록함. 이는 2003년 8월 이후 계속해서 상승추세에 있던 순환변동치가 지난 4월부터 연속 다섯달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며 또한 그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어서 그 심각성이 큼.
- 전국의 경기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지표들 중 8월 현재 도소매판매액지수와 건설기성액(각각 전월대비 0.2%) 지표가 증가하고, 비농가취업자수(전월대비 -0.1%), 산업생산지수(전월대비 -0.8%), 제조업가동률지수(전월대비 -1.1%), 수입액(전월대비 -2.6%), 수출액(전월대비 -2.7%) 지표는 감소함. 2003년 3월 이후 꾸준한 상승을 보여주던 수출액 지표가 2004년 5월 이후 3달째 연이은 하락세를 보임으로써 현재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가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줌.

<전국 동행종합지수 및 순환변동치의 동향>

(2000=100, 전월비 : %, 전월차 : p)

구 분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㉑	04.08 ^㉑
동 행 종 합 지 수	121.6	123.2	123.9	124.5	124.5	124.3	123.9	123.3
동행종합지수 전월비	0.7	1.3	0.6	0.5	0.0	-0.2	-0.3	-0.5
순 환 변 동 치	99.6	100.3	100.4	100.3	99.7	98.9	98.1	97.1
순환변동치 전월차	0.1	0.7	0.1	-0.1	-0.6	-0.8	-0.8	-1.0

주 : p)는 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홈페이지.

<전국 경기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률>

(단위 : 전월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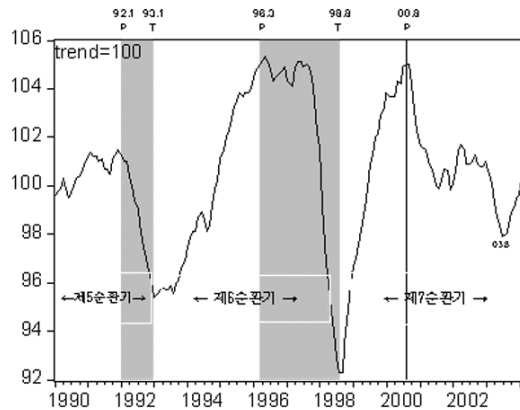
구 분	04.01	04.02	04.03	04.04	04.05	04.06	04.07 ^㉑	04.08 ^㉑
비농가취업자수	0.6	0.7	0.7	0.2	-0.1	0.0	-0.1	-0.1
산업생산지수	1.0	2.1	0.6	0.6	0.2	0.3	0.0	-0.8
제조업가동률지수	-0.3	1.6	0.1	0.0	-0.9	-0.3	-0.4	-1.1
도소매판매액지수	0.3	0.4	-0.1	-1.0	-1.1	0.4	0.2	0.2
건설기성액	-0.9	-1.5	-1.4	1.5	1.1	-2.5	-0.8	0.2
수출액	4.7	5.0	3.3	0.8	-0.6	-1.2	-1.4	-2.7
수입액	0.2	2.7	0.3	2.9	0.8	-0.7	-2.7	-2.6

주 : 각 구성지표의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한 후의 전월비임.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 전망이지만 2003년 8월이 저점이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기 는 하나 4~8월 계속해서 순환 변동치가 하락함으로써 선불리 판단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임.

〈전국 경기동행종합지수의 순환변동치〉



주 : 음영기간은 전국의 경기불황기를 의미함.

- 전국인 경우 현재 경기국면인 제7순환기의 정점이 2000년 8월(잠정치)로 확정될 경우 확장국면은 24개월로 이는 평균보다 약 9개월이 짧은 것임. 반면 2003년 8월을 제7순환기의 저점으로 볼 경우 수축국면은 36개월로 이는 평균보다 약 17개월이 긴 것임.
- 이러한 사실은 우리나라 경기종합지수 작성 이래 확장국면은 제1순환기와 같이 가장 짧은 것이며, 수축국면은 가장 긴 것으로 1970년대 이후 최대의 경기불황을 겪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음.
- 더군다나 최근 중국의 금리인상 등의 긴축재정정책, 이라크 전쟁 등으로 인한 세계경제 불안, 고유가정책, 미국의 금리인상 등이 우리나라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축국면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음.

3. 2004년 8월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의 하락요인

- 2004년 8월중 제주지역 경기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가 전월보다 하락한 원인은 경제의 양축인 소비와 생산부문 모두 부진하기 때문임. 이에 소비부문으로는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을 나타내는 소비자물가지수³⁾를 분석하고, 생산부문에 있어서는 생산활동의 대표적 지

3) 소비자물가지수는 도시가구가 소비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일정량의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지수로 소비자가 일정한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비금액의 변동을 나타내므로 소비자의 구매력 측정에 사용됨.

· 제 · 주 · 경 · 기 · 종 · 합 · 지 · 수 ·

표인 산업생산지수를 분석함으로써 현재 제주의 경제동향을 살펴보고자 함.

-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2004년 8월 현재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중간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전국평균보다 약 0.77%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각 시·도 소비자물가지수〉

	전국(A)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경기도
1990	60.93	61.83	59.13	61.30	60.80	60.45	58.56	63.27	59.43
1995	82.33	82.88	80.94	83.61	82.10	81.39	82.70	81.29	81.75
2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2001	104.10	104.40	104.10	103.80	104.40	103.70	103.80	104.00	104.20
2002	106.90	107.80	106.80	106.30	107.10	105.90	106.30	106.70	107.40
2003	110.70	111.90	110.60	109.80	110.50	109.40	109.60	110.30	111.10
2004.8(현재)	114.21	115.74	113.45	112.60	113.91	113.60	113.29	114.03	114.40
	강원도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B)	B/A(%)
1990	59.77	62.27	60.57	59.66	60.21	62.04	62.45	59.76	-1.92
1995	81.24	82.26	82.40	82.70	81.05	82.52	82.17	82.04	-0.35
2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0.00
2001	103.80	103.60	103.60	103.90	103.40	103.50	103.90	103.00	-1.06
2002	105.70	105.40	105.80	105.90	105.50	105.30	106.50	105.90	-0.94
2003	109.30	109.20	109.60	109.60	108.80	108.00	110.30	109.40	-1.17
2004.8(현재)	112.96	112.41	113.54	113.34	112.30	111.28	113.59	113.34	-0.77

(2000=100)

주 : 2004년 자료는 1월~8월 평균자료임.

자료 : KOSIS(<http://kosis.nso.go.kr>)

-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대체적으로 전국평균 소비자물가지수보다 낮은 수준이나, 2004년 8월 현재 전국평균과의 격차가 줄어들었음. 특히 2004년 8월 현재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대비 약 3.6%(전국평균 3.2%)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2000년대 들어 가장 높은 상승률임.
 - 제주지역 소비자물가지수의 세부항목 중 「광열·수도」항목이 전년대비 8.5% 증가하여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가상승의 영향으로 보여짐.
 - 두 번째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항목은 식료품으로 전년대비 5.8% 상승함. 올해 작황이 좋았던 채소·해조류는 작년대비 2.7% 하락하였으나 과일인 경우 전년대비 31.6%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임.

- 2000년대 들어와서 단체여행비 및 PC방 이용료 등의 감소로 교양·오락비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식료품비, 주거비, 교통통신비는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2004년 현재 주거비, 교육비, 교양·오락비는 전국평균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통·교통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게 나타났음.

〈제주지역 세부항목별 소비자물가지수〉

(2000=100, %)

	총지수	식료품비						
		총지수	곡류	육류	낙농품	어개류	채소·해조류	과실
1990	59.8(-)	58.8 (-)	56.8 (-)	72.4 (-)	65.7 (-)	61.2 (-)	55.2 (-)	56.3 (-)
1995	82.0(5.0)	83.8 (6.0)	68.7 (4.2)	90.7 (4.2)	88.2 (5.8)	94.3 (3.6)	77.9 (-4.3)	119.1 (27.7)
2000	100.0(2.1)	100.0 (0.2)	100.0 (4.0)	100.0 (5.2)	100.0 (-4.2)	100.0 (1.8)	100.0 (0.3)	100.0 (-17.6)
2001	103.0(3.0)	102.8 (2.8)	100.3 (0.3)	109.2 (9.2)	104.4 (4.4)	105.3 (5.3)	96.8 (-3.2)	111.7 (11.7)
2002	105.9(2.8)	107.7 (4.8)	99.1 (-1.2)	125.9 (15.3)	102.2 (-2.1)	114.7 (8.9)	110.6 (14.3)	128.1 (14.7)
2003	109.4(3.3)	113.2 (5.1)	102.9 (3.8)	131.7 (4.6)	102.2 (0.0)	116.2 (1.3)	131.7 (19.1)	131.5 (2.7)
2004.8(현재)	113.3(3.6)	119.7 (5.8)	106.5 (3.5)	140.6 (6.7)	106.1 (3.8)	125.8 (8.3)	128.1 (-2.7)	173.1 (31.6)
2004.8 (현재, 전국)	114.2(3.2)	118.7 (5.6)	106.3 (4.3)	148.1 (12.1)	109.2 (5.1)	114.8 (2.2)	129.4 (-0.3)	151.8 (22.3)
		주거비	광열·수도비	보건·의료비	교육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1990		58.4(-)	50.6(-)	62.9(-)	43.0(-)	83.9(-)	55.7(-)	
1995		89.9(3.6)	62.6(1.9)	80.4(6.4)	70.5(11.6)	95.0(0.3)	75.4(4.5)	
2000		100.0(0.8)	100.0(11.5)	100.0(7.9)	100.0(6.0)	100.0(0.6)	100.0(1.9)	
2001		100.9(0.9)	105.7(5.7)	112.7(12.7)	102.7(2.7)	98.5(-1.5)	102.8(2.8)	
2002		102.0(1.1)	104.0(-1.6)	112.7(0.0)	110.4(7.5)	98.8(0.3)	103.0(0.2)	
2003		103.4(1.4)	111.1(6.8)	115.6(2.6)	115.9(5.0)	99.5(0.7)	103.3(0.3)	
2004.8(현재)		105.3(1.8)	120.6(8.5)	117.7(1.8)	121.1(4.5)	99.6(0.1)	105.5(2.1)	
2004.8(현재, 전국)		115.7(2.2)	117.7(4.1)	115.8(1.5)	122.5(4.8)	100.3(0.3)	104.5(1.8)	

주 : 1) 2004년 자료는 1월~8월 평균자료임, 2) ()는 전년비임
 자료 : KOSIS(<http://kosis.nso.go.kr>)

· 제 · 주 · 경 · 기 · 종 · 합 · 지 · 수 ·

- 제주지역 산업생산지수인 경우 2000년을 기준으로 할 때, 90년대에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2000년대 들어와서는 전국평균을 밑돌고 있음.
- 제주도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지역은 강원, 전북, 전남 지역으로 2000년대 들어와 각 지역의 산업생산지수가 전국평균 산업생산지수 수준보다 낮은 수준을 보임.
- 이처럼 최근 산업생산지수가 하락하는 이유로 원자재 가격상승 및 소비부진에 따른 제조업 위축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짐.

〈전국과 제주도의 산업생산지수〉

(2000=10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2004.8 (현재)
전국	43.14	64.92	100.00	100.70	108.80	114.40	123.45
제주	77.21	73.40	100.00	100.60	104.00	114.30	98.53

주 : 1) 각각의 지수는 원지수임.
 2) 2004년 자료는 1월~8월 평균자료임.
 자료 : KOSIS(<http://kosis.nso.go.kr>)

〈각 지역의 산업생산지수 대비 전국평균 산업생산지수〉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90	-44.05	87.61	-50.78	-25.39	22.18	-7.80	-16.07	-	78.99
1995	-35.32	53.74	-28.88	-19.24	20.44	12.64	-12.61	17.11	13.05
2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001	1.09	0.20	0.60	0.40	-4.87	2.78	8.34	8.84	-0.10
2002	11.40	-2.48	4.14	5.88	-8.82	-4.04	12.32	2.21	-4.41
2003	9.00	-0.87	2.36	18.53	-3.58	-4.46	18.71	3.85	-0.09
2004.8 (현재)	17.63	-10.16	5.61	33.54	-2.46	-7.40	23.56	1.16	-20.19

자료 : KOSIS(<http://kosis.nso.go.kr>)

4. 2004년 8월 경기 침체속에서의 호조 국면

- 외국인 관광객은 PATA총회, ADB 연차총회, 한일정상회담등 각종 국제행사로 제주에 대한 이미지가 제고되고, 중국계 관광객의 증가로 전년동월과 비교하여 3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1~8월중 외국인 관광객은 전년동기대비 80.7% 증가함(추가)
- 농업부문인 경우 마늘, 양파, 감자 등 밭작물의 영향으로 농산물 출하액이 2004년 3월 이후 6개월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수산물 또한 태풍 영향으로 어장 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갈치, 고등어, 멸치 등 어획량이 증가함.
- 또한 돼지 출하두수도 전년동기대비 내수용 출하량 증가로 2월 이후 7개월째 증가하여 1차산업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
 - 2004년 1~8월 총 돼지출하두수는 399,280두로 전년동기 391,975두 대비 7,305두 증가, 전년동기 1.9% 증가율을 보임
- 건설분야인 경우 기존 수주 물량 발주에 따른 영향으로 주요 건설자재의 출하량이 증가하여 침체된 도내 제조업을 지탱하고 있음.
 - 레미콘 출하량은 1,353m³으로 전년동기 1,255m³ 대비 7.8% 증가함.
 - 아스콘 출하량은 327천톤으로 전년동기 298천톤 대비 9.7% 증가함
 - 시멘트 입하량은 571천톤으로 전년동기 511천톤 대비 11.7% 증가함
 - 모래 입하량은 1,442천톤으로 전년동기 1,280천톤 대비 12.7% 증가함.
- 2004년 1~8월 자동차 등록대수는 205,479대로 전년동기 198,509대 대비 3.5% 증가를 보여 소비심리가 다소 회복되었음을 보여줌.
- 소비부문인 경우 8월부터 확대시행된 토요일무제와 여름 휴가철로 인한 이용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대소형 매장 매출액⁴⁾이 전월비 0.75%가 증가하였으며, 9월 추석연휴 및 가을단풍관광 등으로 인한 향후 소비부문 회복이 기대됨.

4) 대소형 매장 매출 조사 대상에는 대형매장으로 농협하나로마트, E-마트(탑동점, 신제주점), 뉴월드백리, 상록회관, 코리아마트(서귀포)가 있으며, 소형매장으로 230개 점포의 근대화연쇄점, 757개 점포의 남양제인, 159개 점포의 슈퍼마켓협동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음.

〈대소형 매장 매출액〉

(단위: 백만원, %)

	대소형매장매출액	전월비
2004. 01	31,211	40.64
2004. 02	25,700	-17.66
2004. 03	22,116	-13.94
2004. 04	22,893	3.51
2004. 05	23,695	3.50
2004. 06	21,941	-7.40
2004. 07	24,308	10.79
2004. 08	24,490	0.75

주 : 실질가격임.

자료 : 제주도청 재정경제과 내부자료.

- 한은제주본부에서 조사·발표하는 향후 경기전망 지표중 향후 6개월 동안의 「생활형편전망 CSI」는 82로 전분기 78보다 다소 상승하여 비관적인 입장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생활형편전망 CSI가 금년들어 소폭이기는 하지만 계속 완화되고 있음.

	03. 1/4	2/4	3/4	4/4	04. 1/4	2/4	3/4
생활형편전망 CSI	88	88	86	91	77	78	82

- 한은제주본부에서 조사·발표하는 향후 1년 동안의 「가계수입전망 CSI」는 93으로 전분기 89보다 다소 상승하여 나타나 도민들의 소득상승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보여줌.

	03. 1/4	2/4	3/4	4/4	04. 1/4	2/4	3/4
가계수입전망 CSI	98	96	94	101	87	89	93